

응급처치 물품 체크리스트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반려동물 응급처치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연락망 확보

(현장에서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소, 관할지자체, 소방서 등)

☐ 동물별 개체식별카드

(보호자로부터 등록, 접종, 구충, 중성화 확인)

☐ 입마개, 목줄, 칼라 (물림사고의 예방)

☐ 거즈 붕대 (물림사고의 예방, 상처 보호)

☐ 타월 (고양이 보정, 위생관리)

☐ 체온계

☐ 멸균 비접착식 패드, 압박붕대 (지혈, 상처 보호)

☐ 자가접착붕대 (코반)

☐ 종이반창고 (마이크로포)

☐ 점안용기, 대형 주사기 (안구, 상처 세척)

☐ 생리식염수 (상처 세척 등)

☐ 다양한 크기의 이동장, 임시보호소 설치

화상 입은 동물의 구조

화재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제때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차적인 세균 감염 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동물병원
연락함

2



응급인 동물의
분류

3



물, 냉찜질로
화상부위를 식힘

4



동물을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줌

5



화상부위를
핥지 않게함

6



동물병원 치료



동물을 구조할 때는 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빨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재난 후 동물의 돌봄

재난 후 주변 환경 안전 점검하기

피해 복구 후 집 안팎의 날카로운 물건, 위험한 물질, 오염된 물, 쓰러진 전선 또는 야생동물의 침입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당분간 동물은 밖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먹지 않은 동물, 소량부터 급여하기

동물이 오랜 시간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경우, 조금씩 음식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먹는 양을 늘이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빠른 일상 회복 돕기

동물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쉬거나 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익숙한 냄새와 환경이 바뀌면, 반려동물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생활, 환경 변화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 징후 시 의사 상담하기

당분간 동물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스트레스, 불편함 또는 질병의 징후가 보이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